

국제금융시장 1월 동향 및 2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양 서 영 (syeeong@kdb.co.kr)
 이 도 건 (gdl1101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1월 원/달러 환율은 전월말 대비 하락하였으며 '23.2월에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,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추가하락이 제한되며 횡보세 전망
- ◆ **(금리)** 1월 주요국 국채 장기금리는 통화정책 및 경제지표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였으며, '23.2월은 미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부각에 따라 하락 전망
- ◆ **(주가)** 1월 주요국 주가지수는 전월말 대비 상승했으며, '23.2월에는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

□ 1월 주요 경제·금융 동향 : 미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로 '22년 중 금융시장을 압박했던 전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추세 완화 기대 ↑

- 미국은 FOMC(1.31~2.1일)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 결정((상단) 4.50% → 4.75%)
 - 2회 연속 금리인상폭이 축소되며 상반기 중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졌으나, 연준은 “경제지표 확인 후 결정”이라는 원칙론 유지
 - 파월의장은 최근 확인되는 물가 하락이 금리인상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 평가했으나 연내 목표치(2.0%) 도달과 금리인하에 대한 회의적 입장 재확인
- 한국은 금통위(13일)에서 기준금리를 25bp(3.25% → 3.50%) 인상
 - 한국은행은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('22.12월, 5.0%)의 억제를 위해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, 경제성장률 둔화(한국은행 '23년 전망치 1.7% 하회 예상), 미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을 근거로 11월에 이어 25bp 인상
 -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적정 기준금리를 3.50%~3.75%로 제시했다고 밝혀 향후 동결 또는 1회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 예상
- BOJ는 17~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'22.12월 통화정책 결정 사항을 유지
 - 구로다 총재는 시장이 추가적인 통화정책 변경 필요성을 부정하였으나, 금융시장은 4월 총재 교체 이후 통화정책 추가 변화 가능성에 주목
- ECB는 2.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(2.50% → 3.00%) 인상
 -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경기침체 가능성이 축소되었으며,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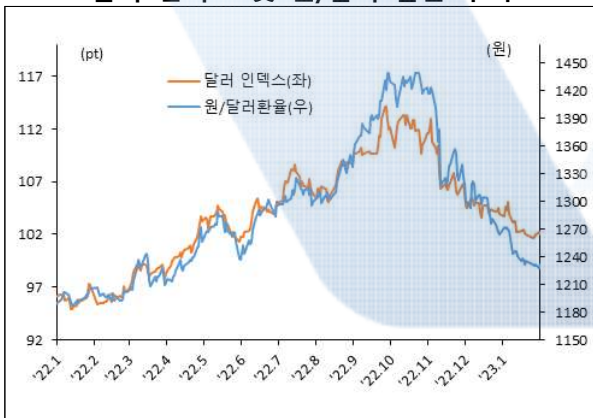
□ '23.2월 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, 1월 고용지표(3일) 및 소비자물가(14일) : 1월 FOMC 이후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를 예상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실업률 상승,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이 확인될 경우 상반기 중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확대
- 한국, 금융통화위원회(23일) : 이창용 총재가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,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1일 발표된 무역수지가 부진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동결 가능성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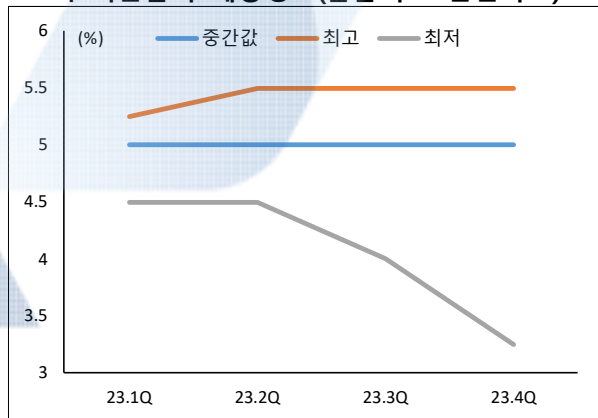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

- (환율) 1월 원/달러 환율은 전월 말 대비 하락하였으나, 2월에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,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추가 하락이 제한되며 횡보세 전망
 - 1월 원/달러 환율은 물가 지표 하락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가능성 점증 및 미 국채금리 하락, 중국의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위안화 강세,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등으로 하락
 - 2월에는 연준의 베이비 스텝(0.25% 인상), BOJ 정책 변경 기대 및 ECB의 매과적 기조로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, 한국 무역수지 적자 지속,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원/달러 환율 추가 하락은 제한될 전망

달러 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추이



미 기준금리 예상경로(블룸버그 컨센서스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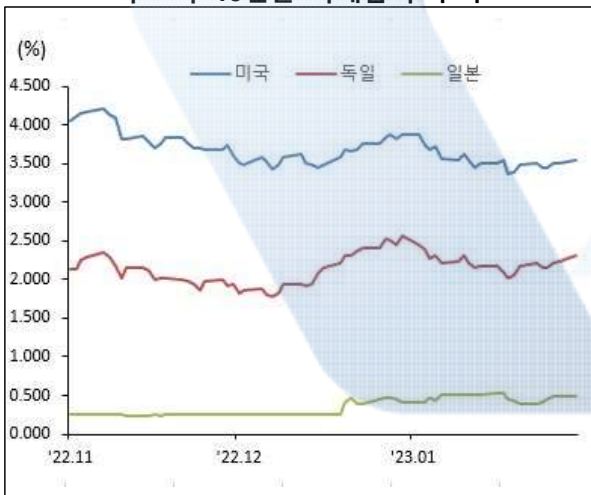
	'20년말	'21년말	'22.12월말	'23.1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	1,086.3	1,188.8	1,264.5	1,231.9	△2.58%
달러 인덱스	89.927	96.141	103.494	102.035	△1.41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,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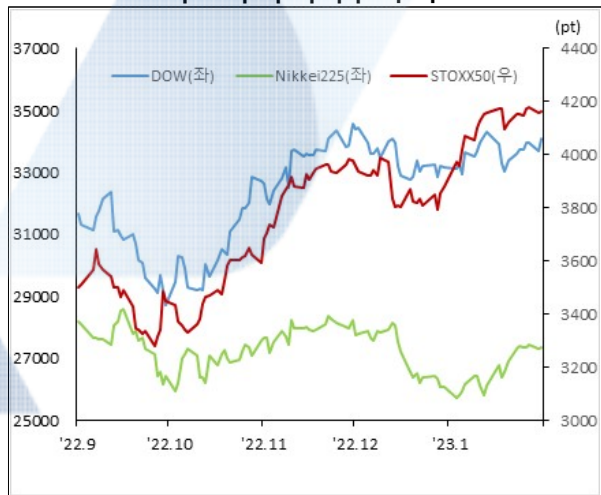
- (금리) 1월 주요국 국채 장기금리는 미국·독일은 하락, 일본은 상승하였으며, 2월은 IMF의 경기 반등 가능성 제시에도 불구하고 하락 예상
 - 1월 미국·독일 금리는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금리인상폭 축소 기대로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연준 및 ECB 인사들의 매과적 발언과 경제 경착륙 우려 완화로 월말 소폭 반등, 일본은 '22.12월 YCC 상한 상향 이후 추가 정책 기대감으로 전월 대비 상승
 - 2월은 ECB 통화정책 회의(2.2일) 외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일정이 없는 가운데 IMF의 전세계 경제성장 전망 상향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완화에도 월초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제시함에 따라 금리 하방 요인이 우세할 전망

- (주가) 1월 주요국 주가지수는 전월말 대비 상승, 2월에는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추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
 - 1월 주요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양호한 유럽의 경제성장률,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강세
 - 유로존의 지난 4분기 GDP성장률은 0.1% 증가하며 역성장을 예상한 시장 기대를 상회
 - 2월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되고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전망과 개별 기업실적 등 실물경기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확대될 전망

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

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

	'20년말	'21년말	'22.12월말	'23.1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0.9132	1.5101	3.8748	3.5069	△36.79bp
독일채 10y	-0.5690	-0.1770	2.5710	2.2860	△28.50bp
일본채 10y	0.0210	0.0710	0.4220	0.4960	+7.4bp
다우존스	30,606.48	36,338.30	32,875.71	34,086.04	+3.68%
유로 Stoxx 50	3,552.64	4,298.41	3,808.82	4,163.45	+9.31%
Nikkei 225	27,444.17	28,791.71	26,340.50	27,349.13	+3.83%

자료 : Bloomberg